직장인 열명 중 아홉명 '회사그만둘까' 고민

회사 비전 없고·상사와 마찰 잦고… 석달에 한번꼴 사표 충동

직장인 96.7%는 평균 석달에 한번꼴로 사표를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5천378명을 상대로 '퇴사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퇴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주기'를 물은 결과 평균 3개월에 1번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퇴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복수응답)는 '회사의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52.5%), '상사와 마찰이 있을 때'(45.6%), '의미없는 일상이 반복될 때'(39%), '연봉이 오르지 않을 때'(33.3%),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28.6%) 등이 꼽혔다.

퇴사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자들은 '이직준비가 됐을 때'(43.3%), '회사가 비전이 없다고 판단될 때'(18%),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을 때'(10.8%),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 때'(9.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주변에 퇴사하는 동료를 볼 때 드는 생각은 '용기있어 보인다'(23.1%), '부럽다'(19.3%), '능력 있어 보인다', '걱정된다'(각각 17.6%), '성급해 보인다'(11%)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한국 상장기업 덩치만 키웠다

상장사들이 작년 매출 외형은 커졌지만 유가상승과 원화절상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수익성은 2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주력 수출품목인 정보기술(IT) 제품의 가격급락 여파로 실적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나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및 IT경기 회복에 힘입어 상장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98개사 상장사 작년 수익성 분석해보니

매출 소폭 증가…10곳 중 2개꼴 '적자'

◇제조업, 1천원어치 팔아 66원 벌어 = 3일 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598개사의 작년 매출액은 671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지만 순이익은 44조4천억원으로 9.6% 줄었다.

국내 기업의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건설과 기계, 화학, 운수장비, 전기전자, 전기가스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확대됐으나 원유 등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하락으로 이익이 줄었다.

유가와 환율은 2년 연속으로 상장사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작년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6%로 2005년 7.8%에 비해 1.2%포인트 낮아졌으며 2004년 9.7%에 비해서는 3.1%포인트 떨어졌다. 2004년과 2005년에는 1천원어치 팔아 각각 97원, 78원을 남긴 반면 작년에는 66원밖에 벌지 못한 셈이다.

이 기간 원·달러 환율 동향은 2004년 말 1천43.8원에서 2005년 말 1천13.0원으로, 작년말에는 929.6원으로 각각 하락해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짓눌렀다.

국제유가(WTI 기준)는 2004년 말 배럴당 43.5달러에서 2005년 말 61.2달러로 높아진 뒤 작년 6월 말에는 73.9달러로 치솟았다가 하락세로 돌아서 작년 말에는 61.2달러까지 떨어졌다.

◇수출기업 '고전', 내수기업 '선전' = 업종별로 보면 수출기업들은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내수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주력 수출업종인 전기전자와 운수장비는 환율하락 영향으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1.87%, 17.38% 감소했으며 소재업종인 철강과 화학도 원자재가격 상승 영향으로 순이익이 각각 17.76%, 13.49% 줄었다.

이 밖에 기계(-26.19%)와 섬유.의복(-31.59%), 운수창고(-38.57%) 등도 업황 부진 여파로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대표적인 내수업종인 금융은 대출자산 및 투자신탁상품 판매 증가에 힘입어 매출액과 경상이익이 각각 11.4%, 4.6% 늘었다.

업종 전체 순이익은 7.7% 감소했으나 법인세 비용 증가와 기타충당금 설정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이 9천억원 감소한 외환은행을 제외할 경우 8.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부진 지속, 하반기 개선기대 = 당초 기대와 달리 올해 상반기에는 주력 수출업종인 IT경기 부진 여파로 상장사들의 실적개선이 미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유가와 환율의 안정세에 힘입어 상장사들의 이익이 작년에 비해 15~2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증권사들은 올 들어 D램과 낸드플래시, 액정표시장치(LCD) 등 주요 IT제품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자 실적 전망치를 크게 낮춰 잡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코스닥 벤처 순익 90%↓

환율하락 여파 실적 부진

지난해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 부진 속에 코스닥 벤처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2006 사업연도 실적'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 350개사의 작년 매출액은 14조9천943억원으로 전년대비 11.6%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7천105억원으로 25.7% 줄고 순이익은 674억원으로 89.1% 급감했다.

이에 반해 코스닥 일반기업 501개사는 매출액이 9.2% 늘어난 가운데 영업이익과 순이익 감소율이 각각 4.9%와 13.0%에 그쳐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밖에 금융업 12개사는 매출액이 0.9% 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흑자전환했다.

특히 벤처기업들은 지난해 매출액영업이익률이 4.7%, 매출액순이익률은 0.4%로 전년 대비 각각 2.4%포인트와 4.2%포인트 하락하는 등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졌다. 일반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률 4.7%, 매출액순이익률 2.1%로 1%포인트 미만으로 하락하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같은 벤처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경쟁심화와 환율하락 등으로 전반적인 영업환경이 악화된 데다 우회상장 법인이 증가하면서 합병·주식교환에 따른 영업권 상각과 계열회사의 지분법평가손실 등으로 영업외손실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IT업종의 전반적인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통신방송서비스와 인터넷 업종이 눈에 띄는 실적개선을 보였다.

통신방송서비스 업종은 LG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등 대형사를 제외한 16개사 중 12개사가 실적호전을 보인 가운데 평균 65.0%의 순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인터넷 업종은 검색광고와 게임 매출증가에 힘입어 NHN과 엠파스가 두드러진 실적호전을 보이면서 전체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와이브로 실시간 서비스 KT가 3일 서울 전역에 WIBRO(와이브로) 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대학생들이 서울시 시티투어 버스에 설치된 노트북과 와이브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울시 관광정보 등을 검색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교육 관련株 훨~훨~

4년새 시총 10배 증가

지난 4년간 정부와 교육계는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 열풍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증권시장에서는 사교육 관련업체가 급성장하는 내수산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시가총액이 거의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회계연도 10개 사교육 관련 상장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학습지나 온라인 강의의 가격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배 이상이나 됐으며 주로 초등학생인 학습지 구독 회원 수는 무려 6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3일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2003년 디지털대성(프랜차이즈학원)과 케이스(수능교육업체)가 상장한 데 이어 2004년 대교(학습지), YBM시사닷컴(온라인영어), 메가스터디(온라인수능)가 기업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교육주가 테마를 이루면서 주가가 급등해 전체 시가총액이 2002년말 현재 2천540억원에서 지난달 30일 현재 2조7천550억원으로 984.6%나 커졌다.

또 매출도 5천687억원에서 1조7천323억원으로 204.6% 증가했다.

교육관련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교 눈높이 수학의 경우 가격은 지난 2002년말 월 2만7천원이었으나 올해 1월 1월3만3천원으로 22.2% 상승했으며 눈높이놀이수학은 같은기간 3만1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25.8% 올랐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 4년간 연평균 5~6%정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최근 3년간 학습지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가격 인상을 못했더라도 같은 기간 연 평균물가상승률(근원인플레이션 기준)이 2~3%였던 점을 감안하면 배 정도 상승세를 보인 셈이다. /연합뉴스

주택 대출 증가율 크게 둔화

은행권 규제 강화에 3월 4,000억 증가 그쳐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뚝 끊겼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의 대출은 늘었지만 증가세는 둔화됐다.

금융감독원은 3월28일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78조3천억원으로 2월말보다 4천억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월별 증가액은 작년 11월 5조2천억원에서 12월 4조원, 올해 1월 1조3천억원, 2월 1조1천억원으로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은행권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월 8천억원, 2월 4천억원으로 둔화된데 이어 3월에는 317억원에 그쳐 잔액이 218조2천억원에 머물렀다.

보험권과 비은행권(은행.보험 제외)의 3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각각 14조9천억원, 45조2천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2천억원씩 증가했지만 2월 증가액 2천억원, 5천억원에 비해 같거나 못미쳤다.

이 같은 현상은 3월2일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 적용하는 등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비은행권도 리스크 관리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작년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34.3%, 담보인정비율(LTV)은 50.3%, 연체율은 0.9%(은행 0.6%, 보험 1.0%, 여신전문사 2.8%, 저축은행 8.9%)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에프엔엔	광통신제조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7	062-973-4401
중앙공업㈜광주지점	경리/총무사원 모집	초대졸/경력1년	1800~2000	04/10	062-941-0890
sm 오피스	거래처 납품직 남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0	011-628-6341
㈜중앙M&H	홈에버/이마트 순천점 가전판매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4/10	062-605-8214
신영중공업㈜	신영중공업 신입/경력직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4/10	061-800-3711
㈜코엔텍	도로설계 및 토목설계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0	062-515-4666
㈜신토LND	사무보조 및 문서관리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4/10	062-380-0800
한국인포데이타㈜ 전남본부	광주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 채용공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0	062-360-0503
㈜나경인터내셔날	무등파크호텔 신입 및 경력 경리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0	062-226-0011
하나애드컴	광고 실사디자이너 채용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4/10	062-974-0041
아시아나IDT㈜	2007년 아시아나IDT 신입(인턴)사원 모집요강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1	02-2127-8425
스틸화이버코리아㈜	자재/구매/물류 사원 및 경리 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3	062-944-3771
샬롬산업㈜	영업소 관리/지원 사원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4/13	062-652-2701
㈜남영건설	(주)남영건설 회계일반업무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3	062-227-2227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구직자 영어면접 잘보려면

"역시 해외 어학연수가 최고"

최근 입사 영어면접을 본 구직자들은 해외어학연수가 영어면접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입사면접 경험이 있는 구직자 1천776명 중 영어면접을 치른 505명에게 '가장 유용한 영어면접 준비방법'을 물은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9%가 '해외 어학연수'라고 답했다.

이어 '스터디·실전연습'(22.8%), '모의영어면접 특강이나 세미나'(13.5%), '영어학원이나 과외'(8.5%) 등의 순으로 영어면접 준비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능력시험 준비가 영어면접에 도움이 됐는지를 물은 결과 '별로 도움이 안된다'(39.0%), '조금 도움이 된다'(34.1%), '전혀 도움이 안된다'(19.4%) 등 부정적인 응답이 58.4%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美와 FTA 체결한 나라들

주식 수익률 대체로 올랐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의 증권시장 수익률이 FTA 발효 이전에 비해 대체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미국과 FTA를 체결, 발효중인 12개국 가운데 경제나 증시 규모가 미약한 국가를 제외한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멕시코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주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효 전에 비해 발효 후 상승 폭이 커졌다고 3일 밝혔다.

국가별로는 2004년 1월1일 미국과의 FTA가 발효한 칠레와 싱가포르의 경우 발효 전 3년간 16.89%와 -2.81%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발효 후 3년간은 22.89%와 23.07%의 상승률을 보였다. 94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된 캐나다도 발효전 3년간 10.90% 상승에서 발효후 3년간 12.38% 상승으로 나중 상승률이 소폭 높았다.

이와 함께 2005년 1월1일 FTA가 발효된 호주의 경우 발효일 전후 2년 평균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발효전에는 6.88% 상승에 그쳤으나 발효 후 23.58%나 올랐다. 다만 94년 1월1일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 멕시코는 발효전 104.64%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였으나 발효 후 9.71% 상승에 그쳤다. 멕시코 증시가 이처럼 FTA 발효 이전에 급등세를 보인 것은 95년 외환위기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도메인 등록업체 자격기준 강화

앞으로는 도메인 등록 및 관리전문업체인 '레지스트라'의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3일 미국의 시애틀피아이닷컴에 따르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인 ICANN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과 관리능력, 고객의 도메인 등록정보를 백업할 수 있는 서버 등을 갖추지 않은 레지스트라의 경우, 레지스트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새로 제정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인터넷 도메인 등록 및 관리 업무를 갑자기 중단해 파문을 일으켰던 레지스터플라이닷컴(RegisterFly.com)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중소 규모의 미국 레지스트라인 레지스터플라이닷컴은 이달 초 기업 소유지분을 둘러싼 내부 경영진간의 법적 소송사태가 빚어지면서 아무런 예고없이 영업을 중단, 이 회사를 통해 도메인을 등록했던 수많은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기존 도메인에 대한 사용 연장등록을 해주지도 않은 채 갑자기 영업을 중단, 일부 고객들의 도메인이 일시적인 사용 마비 상태에 빠져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연합뉴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달부터 고객 자필서명

앞으로 은행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에게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부담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은 설명을 들은 뒤 약정서에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라면 매월 대출금거래장과 이자결제통장에 표시되는 변동금리 적용내용을 통해 자신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어느 수준이며 어떻게 변동됐는지 알 수 있다.

또 각 은행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통해 금리변동에 따라 자신의 이자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조회할 수 있고 납입일 이전에 이자납입일과 적용금리, 납입금액 등을 미리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특성과 위험을 자세히 설명한 핸드북과 체크리스트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주력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